“성사 은총 안에서 형제 공동체인 교회, 복음을 전하며 피조물을 돌보는 교회”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하기동성당

연중 제29주일
2026년 10월 18일
제1072호(가해)

주소(34093) 대전시 유성구 송림로 49 사무실 (042)823-7621 주임신부 826-7621 위령회장 010-7638-9995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두초 디 부오닌세냐의 <갈릴래아 산에 나타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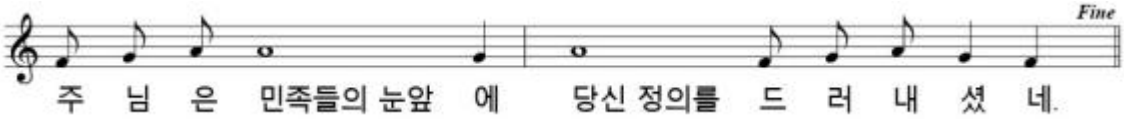
주일	토(특전)	17:00
	교중	10:30
	저녁	19:00

평일	월	06:00
	화,목	19:30
	수,금	10:30

성체강복	매월 첫 목요일 19:30
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19:30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0:30

전례 성가	입당 4	봉헌 210, 216	영성체 172, 165	파견 63

화답송



주일		시간	주송자	제1독서	제2독서	청소 봉사	승합차 봉사
연중제29주일	17일(토)	17:00	김승하	신서용	이윤우	2구역	이병석 김옥순
	18일(주일)	10:30	박종찬	성하옥	우서영		
		19:00	이재섭	김지수	김진호		
연중제30주일	24일(토)	17:00	홍성민	이진주	김규린	3구역	서정인 우서영
	25일(주일)	10:30	김기평	이병석	오두의		
		19:00	김지수	성재훈	김지원		

(단위 : 원)	주일헌금	교 무 금	성소후원	사회복지
연중제28주간	1,129,000	1,010,000	195,000	35,000
누계	2,359,000	1,550,000	266,000	84,000

농협, (재)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교 무 금	351-0750-7442-33
•성소후원금	351-0750-7486-63
•사회복지후원금	351-0750-7494-33

레지오의 선서문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님, 저(성명과 세례명)는(은) 오늘 레지오 마리애 단원으로 등록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는 합당한 봉사를 드릴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저에게 오시어 저를 당신으로 채워 주소서. 제가 하는 보잘 것 없는 일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받쳐 주시어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으며, 성모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기에, 저희 또한 성모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알아뵙고 사랑하며, 삼위일체 하느님께 모든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드리나이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일치하시고, 오직 하느님만을 되풀이하여 말하는 메아리이기에 당신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모든 재능과 덕행과 은총을 저희에게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레지오 단원으로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비결은 성모 마리아와 일치하여 성모 마리아의 겸손과 모범을 따라 삼위일체 하느님의 뜻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임을 믿나이다.

(선서하는 단원은 벡실리움 깃대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레지오 단기를 손에 쥐고 성모님의 병사요 자녀로서 당신 앞에 서서, 성모 마리아께 온전히 의탁함을 선언하나이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제 영혼의 어머니시옵니다. 성모님의 마음과 제 마음은 하나이며, 이 하나인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오니"라고 다시 겸손되이 아뢰오니, 당신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큰일을 하시고자 다시 오시나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님. 당신의 권능으로 저를 감싸 주시고 제 영혼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어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시는 성모님의 사랑과 뜻에 일치하게 해 주소서. 당신의 권능으로 흠 없으신 성모님 안에서 저 또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제 안에서도 자라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저 또한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이 세상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드러내게 하시어, 그들과 제가 이 세상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 성모 마리아와 함께 복되신 성삼위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소서.

오늘 저는, 당신께서 저를 받아 주시고 저를 써 주시며 저의 나약함을 굳센 힘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확신하며 다짐하나이다. 저는 감히 레지오의 대열에 함께하여 충실한 봉사를 약속하나이다. 저는 레지오의 규율에 온전히 복종하겠나이다. 이 규율은 동료

단원들과 저를 하나로 묶어 하나인 군단을 이루도록 하며, 저희의 대열을 가다듬어 성모 마리아와 함께 진군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당신 은총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자 하나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땅의 얼굴은 새롭게 되고 온 누리에 하느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주교회의 2025년 추계 정기총회 선서문(시안) 사용 승인 >

1. 레지오 단원은 ′무엇을′ 선서했는가?

선서문에서 단원들이 성령과 사령관이신 성모마리아 앞에서 엄숙하게 고백하고 다짐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선서함(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채우는 삶)

단원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능력 부족을 인정합니다.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은 보잘것없는 활동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 하느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레지오 단원은 ‘저 스스로는 합당한 봉사를 드릴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저에게 오시어 저를 당신으로 채워 주소서.’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레지오 단원은 사도직(봉사 및 선교)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지식, 능력, 말솜씨를 의지해 인간적인 자만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매주 주어지는 활동 배당이나 이웃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자신의 노력 위에 성령의 은총이 얹어질 때 비로소 하느님의 위대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하느님 자녀를 성장시키는 탁월한 은총이 있습니다.

둘째, 성모 마리아께 온전한 의탁을 선서함(겸손과 순종의 삶)

레지오 단기(백실리움)를 손에 쥐고 성모님의 ‘병사’이자 ‘자녀’로서 살 것을 선언합니다. 영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성모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겠노라고 선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의 마음과 제 마음은 하나이며, 이 하나인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오니'라고 다시 겸손되이 아뢰오니...’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자신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충돌할 때, 성모님처럼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고자 기도합니다. 내 주장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처분에 온전히 의탁하는 성모님의 마음을 매일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레지오 단원은 세상의 유행이나 헛된 가치를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처럼 오직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만을 세상에 되풀이해 전하는 메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대열에 합류하여 충실한 봉사를 선서함(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

선서한 레지오 단원은 성령께서 자신의 나약함을 굳센 힘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선서를 통해 레지오라는 거룩한 대열에 기꺼이 동참하여 교회를 위해 충실히 봉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레지오 단원은 본당 안의 다양한 단체나 교우들 사이에서 험담이나 편가르기를 멀리합니다. 선서문에서 고백한 대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레지오 규율과 단장(및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하며 공동체의 일치를 깨뜨리지 않는 중심추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의 은사를 청해야 합니다. 레지오 단원에게 그 기준은 바로 선서문과 교본입니다. 묵주를 손에 들고 선서문과 교본을 멀리하면 자신의 아집을 키우는 사람이 됩니다.

평화의 도구로서의 레지오 단원은 미사 시작 전 미리 와서 기도하고, 성체조배와 묵주기도를 생활화합니다. 본당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내 영혼 안에 먼저 ‘사랑의 불’을 놓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의 불을 지피는 '영적 불씨'로 살아갈 때, 편을 가르지 않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레지오 규율에 대한 온전한 복종을 선서함

레지오 단원은 개인의 생각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레지오의 규율과 시스템에 온전히 복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레지오 단원은 ‘저는 레지오의 규율에 온전히 복종하겠나이다. 이 규율은 동료 단원들과 저를 하나로 묶어 하나인 군단을 이루도록 하며...’라고 고백했습니다. 규율에 대한 순종은 매주 열리는 주 회합 참석, 매일 바치는 까떼나 기도, 철저한 활동 보고 등 레지오 단원의 의무를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성실함으로 드러납니다.

레지오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군단(대열)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단원하고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와 맞지 않는 단원과도 규율 안에서 하나로 묶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장의 권위에 순명하고 단원 간에 사랑으로 일치하는 것 자체가 악의 세력을 이기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2. 선서를 한 레지오 단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레지오 마리애 선서문에 나타난 단원의 삶은 단순한 주간 활동 보고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의탁하며 성모 마리아와 완전히 일치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삶입니다. 선서를 마친 단원들이 기도와 활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모님의 겸손과 모범을 따르기

레지오 단원은 성모 마리아와 늘 영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지소서.”라고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성모님의 모습을 레지오 단원들은 본받고자 묵주를 쥐고 살아갑니다. 레지오 단원은 성모마리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삼위일체 하느님의 뜻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철저한 겸손을 본받아, 생색나거나 드러나는 자리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본당의 숨은 봉사에 먼저 손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들이 바로 레지오 단원들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 (선교와 봉사)

레지오 단원은 혼자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활동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레지오 단원의 활동은 사제가 필요한 곳에 사제를 모시고 가는 삶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레지오 단원은 선서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제 안에서도 자라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저 또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드러내게 하시어...’라고 고백합니다. 레지오 단원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는 성사 생활(미사, 고해성사)과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쉬는 교우(냉담 교우), 외롭고 소외된 이웃, 주님을 모르는 사람 등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서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영적 싸움터 전면에 나서서 주님을 증거하는 ‘성모님의 병사’'로서의 삶입니다.

또한 비신자나 냉담 교우를 대할 때 가르치려는 태도나 강요하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신앙을 나누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낮추심을 본받아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며, 삶의 모범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방식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료 단원들과 일치하여 단단한 군단 이루기

레지오 단원들은 홀로 돌출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규율 안에서 동료 단원들과 하나로 묶여야 합니다. 단원 간의 일치를 통해 대열을 올바르게 가다듬고 영적 진군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치는 사회적 친목과 다릅니다.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며, 기도와 활동과 주회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넷째, 영적 성장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 드리기

레지오 단원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영혼을 늘 깨끗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기도 생활에 힘쓰고, 생각과 말과 행위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단원들의 삶이 하느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3. 레지오 간부는 '레지오 규율'의 가시적인 수호자

선서문 내용에 '저는 레지오의 규율에 온전히 복종하겠나이다. 이 규율은 동료 단원들과 저를 하나로 묶어 하나인 군단을 이루도록 하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은 선서를 통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규율에 복종하겠다고 하느님 앞에 약속합니다. 단장은 이 규율이 쁘레시디움 안에서 올바르게 지켜지도록 감독하고 이끄는 책임자입니다. 단원들이 규율 안에서 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차적인 기준점이 바로 단장입니다.

첫째, 단장은 성모님과 함께 '대열을 가다듬는' 지휘관

레지오는 악의 세력과 맞서 세상의 성화를 위해 싸우는 '성모님의 군대'입니다. 군대에는 대열을 정비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단장은 성모님의 대리자로서 단원들의 활동을 배당하고, 영적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다듬으며, 단원들이 지치지 않고 영적 진군(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휘관의 말에

순명하지 않는 단원은 레지오 단원이 아닙니다.

레지오 단원의 활동은 단순히 ‘나 편한 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공동체적 임무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기쁨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성모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장은 활동을 배당하며 본당 공동체를 돌보아야 하고, 사목자의 사목방침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단장은 단원 간의 '일치와 사랑'을 이루는 영적 어머니의 대리자

선서문의 내용에 ‘성모 마리아께서는 제 영혼의 어머니시옵니다. 성모님의 마음과 제 마음은 하나이며...’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선서문은 성모님의 마음과 단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장은 평평한 조직의 관리자가 아니라, 쁘레시디움 공동체 안에서 성모님의 모성적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단원들이 서로 시기하거나 분열되지 않고, 성모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온유함과 겸손으로 공동체를 돌보는 봉사자입니다. 분열과 불순종의 깃발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의 옷을 입은 봉사자입니다.

셋째, 단장은 나약함을 힘으로 바꾸는 '기도와 활동의 모범'

레지오 단원은 ‘저는, 당신께서 저를 받아 주시고 저를 써 주시며 저의 나약함을 굳센 힘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확신하며 다짐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단장 역시 인간이기에 나약한 단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을 굳게 믿고, 자신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당신 은총으로 지켜 주실 것을 삶과 활동으로 먼저 증명해 보이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장의 투철한 기도 생활과 봉사 정신은 동료 단원들에게 가장 큰 영적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미사에 참례하고, 공동체와 일치하며, 복음 선포의 최전선에 서서 힘차게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레지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레지오입니다. 레지오는 개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레지오를 향한 식별의 기분은 바로 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레지오에 함께 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본당 안에서 겸손한 모범으로 살고, 세상 앞에서는 성모님의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소외된 이웃을 향해 실제로 발걸음을 옮기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레지오 단원을 모집합니다.

✦ 묵주기도 성월의 묵주기도

- 우리 성당은 10월에는 특별히 지향을 두고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지향1. 2027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 지향2. 본당공동체의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10월 마지막 날 해미성지에서 봉헌하며, 순교자들과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 기도합계는 사무실 앞에 놓인 함에 익명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 특별헌금, 한끼 100원 나눔

- 18일(연중 제29주일) : 전교주일
- 25일(연중 제30주일) : 한끼 100원 나눔

✦ 생활 속 작은 선교 실천

① 오마이갓 운동

놀랄 때, 기쁠 때, 슬플 때 “아이고!” 대신 “오 주님!” 하고 하느님을 부릅시다.

② 우리 성당을 내 카톡 프로필에

지난 5월 신부님께서 권고하신 성당사진 프로필 올리기를 계속 실천합시다.

③ 누군가를 위한 기도 카드

가족, 이웃, 선교대상자를 위한 기도 카드를 적어 1층 성모님 옆 기도판에 걸어 주세요.

✦ 전신자 도보 성지순례 안내

- 장소: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 일자: 10월 31일(토)
- 참가비 : 1인 15,000원
-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성당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 1코스: 한티고개 → 해미성지 도보순례
- 2코스: 여사울성지 → 덕산순교성지 → 해미읍성 → 해미성지

※ 1코스는 순교자들이 붙잡혀 걸으신 한티고개를 넘는 도보순례 코스이고, 2코스는 교회사에 관심있으신 분들과 도보를 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 위령의 날 미사

- 일시: 11월 2일(월)
- 산내공원묘원(11:00): 김종수(아우구스티노)주교
- 성환공원묘원(11:00): 한정현(스테파노)주교
- 대전국립현충원 현충관(10:30): 강전민(스테파노) 신부
- 준비물 : 연도책, 미사준비, 봉헌금 및 개인 돗자리

✦ 단체별 모임

사 목 회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봉사자교육	22일(목) 저녁미사 후
안나회, 요셉회	25일(주일) 교중미사 후
청 년 회	25일(주일) 저녁미사 후

- 모든 단체는 모임 후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 레지오 단원 모집

- 매주 화요일 저녁, 수요일 오전에 레지오를 하실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 - 문의: 꾸리아 단장 또는 성당사무실

✦ 예비자 교리반

- 교리시간: 매주 주일 09:30, 4층 교리실
- 접수 및 문의: 성당 사무실
- 주변 이웃에게 가톨릭 신앙을 권면해 주세요. 신앙을 권면하며 선물하기 좋은 「가톨릭 기도서·예비자 교리서·묵주 세트」를 마련하였습니다. 활용하시면서 권면해 주세요.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제61차 “아버지학교” 안내

- 일시: 11월 21일(토)~22일(주일)
- 장소: 수리치골 성모성지
- 문의: 가정사목부 042)256-5487~8, 11/8(주일)까지

✦ 주차 협조 안내

-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성당 뒤편 주차장 출입구 주변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